



제목	페르시아 신화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글사랑출판사
발행일	1995. 7. 20.
저자	편집부 편역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241
ISBN 또는 ISSN	897-0281134

내용 요약

이란의 전설적인 과거로부터 끄집어낸 페르시아 신화는 조로아스터교에서 드러나는 선과 악의 대결, 신들의 행적, 그리고 영웅들과 전설적인 동물들의 공적들에 대한 페르시아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페르시아의 신화는 역사적으로 7세기 중반을 경계로 이슬람 전, 즉 조로아스터교 시대와 이슬람 시대로 나뉘어진다.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와 인도문명 사이의 카스피해 아래에 위치한 탓에 분명 양쪽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재생산해 낼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인적 없는 삼림과 벌판, 어두움 속의 동굴로부터 유래했음에 틀림없는 미술적 힘과 신화의 동물들은 이런 밀집거주 지역의 문화와 만나 그들만의 독특한 페르시아 이야기들을 탄생시켰다. 조로아스터교 성전(聖典) '아베스타'를 비롯해 사산 조 시대의 중세 페르시아 어 종교문헌에는 신화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이슬람시대에 많이 계승되었다. 이 교의 최고신 아후라마즈다는 페르세폴리스 등의 벽화 조각에 잘 나타나 있으며, 사산 조 시대에는 물과 풍요의 여신 아나히타가 은기(銀器) 등에 잘 표현되었다. 조로아스터 교 신화는 같은 아리아 계 민족으로서의 인도 신화와 공통되는 부분이 많다. 이슬람시대에 있어서 아라비아 문자를 사용한 근세 페르시아어로 된 신화적인 작품으로는 '샤나메(shahnameh)'가 최대의 작품이다. 오늘날 이란에서 신화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 작품의 신화적인 부분을 가리킨다.